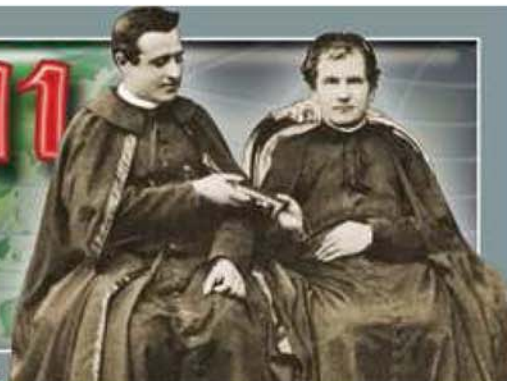


CAGLIERO 11

Bollettino di Animazione Missionaria Salesi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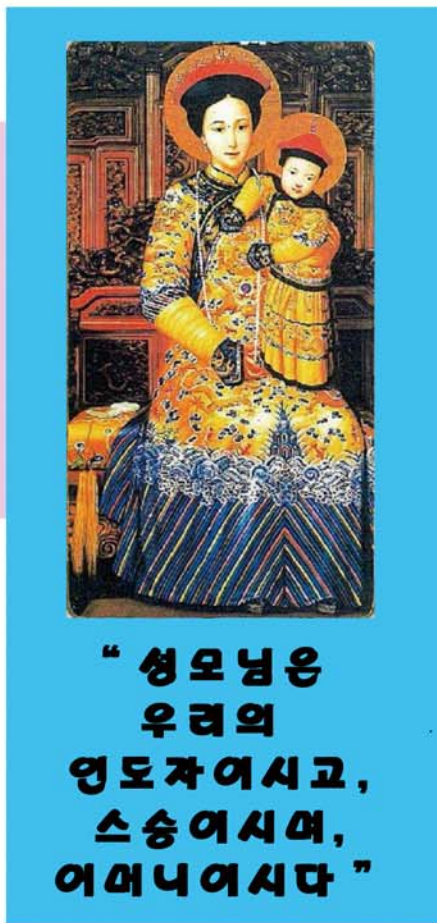
그리스도에게 반한 마음의 증인

**사랑하는 선교사들,
살레시오 회원들,
살레시오 선교의 친구 여러분!**

성모님의 딸은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 5월 24일 전 세계의 모든 살레시오
주교님들은 발도코에 있는 도움이신 마리아
대성전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습니다.
100명의 주교님들 사이에 바로 이 성전에서
파견되어 만민들의 선교를 위해 일하시는
주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1949년부터 살레시오 회원이었고,
50년 전에 토리노에서 공부하였으며,
현재는 홍콩의 교구장이신 요셉 켄 추기경님의
증언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스도에게 반한 마음이 하는 증언은
선교를 위한 최고의 격려입니다.

선교 평의원
클레멘트 바츠라브 신부.

Václav Černý



**“ 성모님은
우리의
업도자이시고,
스승이시며,
어머니이시다 ”**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비결입니다.**

일 전에 비산나에 오신 홍콩 교구장이신
요셉 켄 추기경님에게 “갈리에로 11” 독자를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추기경님은 토리노에서 공부하셨는데
그 당시 크로체다에 대해 추억이 있습니까?**

토리노에 있는 크로체다 신학원은 수많은 선교사
를 배출하였는데 그 비결은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생활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몹시 가난했지
만 우리의 정신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몹시 가난했지만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체다 역시 그러했습니
다. 당시의 우리의 상황은 가난 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즐겁게 지냈습니
다. 여름 방학이 되면 유럽 출신의 신학생들은 자
신들의 관구로 돌아가지만 멀리서 온 우리에게는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산에서
캠핑을 하고 오라토리오를 도와주고 집안에서 여
러 가지 일들을 하였습니다. 역시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함께 있는 것에 대한 비결을 배
웠습니다. 나의 살레시오 삶은 일 년 반의 마카오,
그리고 3년의 홍콩(Aberdeen) 생활을 제외하고는
항상 신학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던 항상 행복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비결을 말하자면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교로서 내가 신학생들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것에 대
한 가치를 확신 합니다. 살레시오 중국 진출 100주년 행사 때 나는 중국을 위한 우리의 선물은 가족정신
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지내는 것, 우정, 젊은이들과 함께 지내면 시간을 낭비 한다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 함께 지내는 것이 우리의 비결입니다.

추기경님은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선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들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표시입니다. 과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개종에 대해서 많은 희망들이 있었습
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우리는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다른 종교의 신봉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살레시오 학교에서는 신자 교사들의 수가 어느 정도 보일
만큼은 되고, 그들이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사 관구장으로 있을 때 한해에 90명의 우리 학교 학생을 세례 준 일도 있
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캐나다나 미국에서 세례를 청하는 많은 어른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노드
후속 작업으로 나온 사도적 권고인 ‘아시아의 교회’에서 아시아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초대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야
기를 들려주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중국에 카를로 브라가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중국의 세 가지 방언을 할 줄 아십니다. 그러나 불행은 그 세 가지 방언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중국
말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큰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홍콩 교회에게 오늘날 도전과 기회는 무엇입니까?

홍콩의 주교로서 교구 사제 한 분을 케냐에 선교사로 파견 하였습니다. 그분은 몇 년 동안 선교사로 체험을 한 후 아주 큰 열정을 배워서 교구로 돌아 왔습니다. 지금은 PIME 선교사들과 연계하여 남녀 평신도 선교사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사목은 쉽습니다. 그러나 '만민을 위한 선교'는 아주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년 홍콩에서는 평균 2000명 정도가 세례를 받습니다. 최근 우리 교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선교를 위한 축제를 준비 하였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 우리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을 개종으로 이끕니다.) 이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일을 말합니다. 홍콩의 환경은 말할 것도 없이 세속적이고, 낮은 출생 율에, 높은 이혼율, 고령화 사회에다 한마디로 가족들의 삶은 고달픕니다. 그래도 종교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들을 발전시키는 간접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선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날 까지도 많은 중국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일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우리의 도전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복음화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돌보는 사제들의 숫자가 아직 미약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들의 복음화의 주역으로서 평신도 선교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tatistiche della Chiesa Cattolica in Cina - Cf. Tripod, vol XXIX, 152 (2009) p.57

가톨릭 신자수 - 공식적인 통계 - 비공식적 통계	5.300.000 약. 12,000,000	사제수 - 공식적인 - 비공식적인	약 3.010 50 (고령), 1.800 (젊은) 60 (고령), 1.100 (젊은)
본당이나 경당의 수	6000 이상	수녀수 - 공식 교회 - 비공식 교회	4,750 3,500 1,250
교구, 교회 직할지역 - 전통에 의하면 - 공식적으로	- 138 (116 활동, 22 비활동) 97 (최근 국경 조정)	신학생수 - 대신학생 - 소신학생 - 비공식신학생	12(신학교) 610 명 22(신학교) 550 명 10(신학교) 350 명
주교수 - 공식 - 비공식	100 58 42	수련수녀수 - 공식 교회 - 비공식 교회	약 60(수련소) 40(수련소) 200 명 20(수련소) 200 명



Intenzione Missionaria Salesiana

살레시오 선교 지향 —아메리카 대륙의 살레시오를 위해

아메리카 대륙의 살레시오 회원들이 지역교회의 건설과 양성을 위해 힘쓰도록...

아메리카 대륙의 가톨릭 신자들이 전 세계 신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 공동체는 '만민을 위한 선교' 에도 공동 책임을 느끼며 성장해야 합니다. 기초 공동체는 자신의 환경 속에서 선교 정신이 자라나도록 매일 매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남미의 주교님들이 모든 본당의 기초 공동체에서 선교 정신이 양성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남미에 있는 우리의 모든 본당과 선교 공소가 기초 공동체를 성장과 양성을 위해 동반 할 수 있도록 기도 합니다.



Se desideri ricevere ogni mese "Cagliero 11", scrivi a cagliero11@gmail.com